

[2015-제1차 일반경찰직 한국사 문제해설]

-정시용 선생-

1. 청동기 시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동기 제작과 관련된 전문 장인이 출현하였으며, 사유 재산 제도와 계급이 나타나게 되었다.
- ② 청동기 문화가 독자적 발전을 이룩하면서, 잔무늬 거울은 거친무늬 거울로 그 형태가 변하여 갔다.
- ③ 고인돌, 돌널무덤, 돌무지무덤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 ④ 이 시기의 전형적인 유물로는 미송리식 토기, 민무늬 토기, 붉은 간토기 등의 토기가 있다.

[정답] ②

[해설] 청동기시기의 청동거울은 청동기시기의 거친무늬거울에서 초기철기시기의 잔무늬거울로 변천하였다.

2. 다음 보기 (가)~(라)에 해당하는 나라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건국 초기부터 주변의 소국들을 정복하고 평야 지대로 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압록강 가의 국내성으로 옮겨 5부족 연맹을 토대로 발전하였다. 그 후, 활발한 정복 전쟁으로 한의 군현을 공략하여 요동 지방으로 진출하였다.
- (나) 어물과 소금 등 해산물이 풍부하였고, 토지가 비옥하여 농사가 잘 되었으며,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 무덤인 커다란 목곽에 안치하였다.
- (다) 명주와 삼베를 짜는 등 방직 기술이 발달하였고, 특산물로는 단궁과 과하마, 반어피 등이 유명하였다.
- (라) 수렵 사회의 전통을 보여 주는 제천 행사가 12월에 열렸으며, 이 때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노래와 춤을 즐겼으며, 죄수를 풀어 주기도 하였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제천 의식을 행하고, 소를 죽여 그 굽으로 길흉을 점치기도 하였다.

- ① (가) - 농경과 목축을 주로 하였고, 특산물로는 말, 주옥, 모피 등이 유명하였다.
- ② (나) - 해마다 씨를 뿌리고 난 뒤인 5월과, 가을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10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 ③ (다) -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게 하였다.
- ④ (라) - 혼인을 정한 뒤 신부집 뒤꼍에 조그만 집을 짓고, 거기서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신랑집으로 돌아가는 풍습이 있었다.

[정답] ③

[해설] (가)-고구려, (나)-옥저, (다)-동예, (라)-부여에 대한 내용이다. ①-부여, ②-삼한, ③-동예, ④-고구려에 대한 설명이다.

3. 우리나라가 일본에 전파한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왕인은 일본에 건너가 천자문과 논어를 전하고 가르쳤다.
- ② 혜자는 일본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 ③ 원효, 강수, 설총이 발전시킨 불교와 유교 문화는 일본 아스카 문화의 성립에 기여하였다.
- ④ 노리사치계는 일본에 불경과 불상을 전하였다.

[정답] ①③ [복수정답 필요]

[해설] 정답 발표는 ③번 하나만 발표되었는데 ③번의 원효, 강수, 설총은 신라 통일기[중대]에 해당되므로 일본의 하쿠호문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야 하므로 이론의 여지 없이 정답이다. 그러나 ①번의 왕인이 천자문을 전하였다는 내용도 틀린 서술이다. 왜냐하면, 왕인이 생존, 활동한 시기는 그의 생몰년이 정확하지 않으나, 대개 근초고왕[346~375] 때나 아신왕[392~405] 때로 보이는데, 『천자문』은 중국 남조의 양(梁) 무제(武帝: 502~549) 시기 주흥사(周興嗣)에게 명하여 편찬된 것으로 5세기 초 왕인의 도래시기와 연대적으로 맞지 않는다.

일본의 역사책 『고사기(古事記)』에는 그의 이름을 ‘와이길사(和邇吉師)’ 또는 백제국왕 ‘조고주(照古主)’라 하였고, 『일본서기(日本書紀)』에는 왕인(王仁)으로 기록되어 있다. 『고사기』에는 백제 근초고왕(近肖古王) 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서기』에는 아신왕(阿莘王) 말년경에 왜국으로 건너온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서 전후 30~40년간의 차이가 있다. 『일본서기』에 기록된 아신왕 말기로 추측되는데, 당시는 고구려 광개토왕(廣開土王)의 남정(南征)으로 백제가 태자 전지(腆支)를 왜국에 파견하고 왜국에서도 병력을 지원하는 등 양국의 군사동맹이 성립하고 우호관계로 나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왜국의 백제 파병은 태자 전지의 외교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고, 5세기 초 전란의 종료 직후 백제는 그 답례로 인적자원을 보냈던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 나라 역사에는 전혀 그의 이름이 보이지 않고 있다.

백제 근초고왕이 아직기(阿直岐)를 왜국에 파견해 왜국 왕에게 말 두 필을 보냈는데, 이때 일본 오진왕(應神王)이 그가 경서에 능통함을 알고 태자 토도치랑자(埴道稚郎子)의 스승으로 삼았다. 아직기가 임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일본왕이 아라타(荒田別) 등을 보내 학덕이 높은 학자를 보내주기를 청하니, 왕인(王仁)이 추천되었다. 왕인은 일본에 건너가 토도치랑자의 스승이 되었다고 전하며, 경서에 통달하였으므로 왕의 요청에 의해 군신들에게 경·사(經史)를 가르쳤다고 한다. 왕인은 인덕과 보조(寶祚)를 비는 파진가를 불러 가부(歌父)로 칭송을 받기도 했다. 그의 자손들은 대대로 가와치(河内)에 살면서 기록을 맡은 사(史)가 되었으며, 왜국 조정에 봉사하였다. 또 율령제(律令制) 하에서 황태자를 가르치는 동궁학사(東宮學士)는 문무천황(文武天皇[제42대 천황/683~707])이 황태자 시절이었을 때 두어졌다. 즉 이에부마감(伊預部馬甘)이 황태자학사(皇太子學士)가 된 예가 최초이므로 왕인이 맨 처음 동궁학사가 되었다는 것은 부분적인 윤색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존 학계의 정밀하지 못한 내용이 통설로 굳어졌고, 이러한 내용이 검증 없이 강의되고 출제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①법과 ③번 모두 틀린 것으로 처리하여 복수정답으로 해야 하며, 이후 학계에서도 수정해야 할 부분이다.

4.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문서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토지는 논, 밭, 촌주위답, 내시령답 등 토지의 종류와 면적을 기록하고, 사람들은 인구, 가호, 노비의 수와 3년 동안의 사망, 이동 등 변동 내용을 기록하였다. 그 밖에, 소와 말의 수,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의 수까지 기록하였다. 특히, 사람은 남녀별로 구분하고, 16세에서 60세의 남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나이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호(가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 상상호(上上戶)에서 하하호(下下戶)까지 9등급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기록된 4개 촌은 호구 43개에 총인구는 노비 25명을 포함하여 442명(남 194, 여 248)이며, 소 53마리, 말 61마리, 뽕나무 4,249그루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① 통일 신라 때의 문서로, 당시 촌락의 경제 상황과 국가의 세무 행정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②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와 면적을 기록하였다.

③ 토착 세력인 촌주가 변동 사항을 조사하여 3년마다 작성하였다.

④ 1933년 일본 도다이 사(東大寺) 쇼소인(正倉院)에서 발견되었다.

[정답] ②

[해설] 제시된 자료는 신라 민정문서의 내용 중 일부이다. ②-민정문서에서는 토지의 종류가 연수유전답, 촌주위답, 마전, 관모답, 내시령답 5종류가 보인다. 그러나 토지 증감의 변동사항이 없으며, 또한 비옥도와 풍흉도도 나타나 있지 않다. 토지의 비옥도에 따른 전품의 구분은 고려시기부터 3등전제로 구분했으며, 조선 15세기 세종 때에 공법[貢法]을 실시하여 전품을 비옥도에 따라 6등전제로 하고, 세율은 풍흉도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하였다.

5. 다음 보기의 출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관등 승진의 상한선은 아찬까지였다.
- 이 골품에 해당하는 자는 비색 공복(公服)은 입을 수 있었으나, 자색 공복(公服)은 입을 수 없었다.

- ① 주로 중앙 관청의 우두머리나 지방 장관직을 담당하였다.
- ② 신라 말기에 이 출신이었던 일부 당(唐) 유학생은 신라 골품제 사회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치 이념을 제시하였다.
- ③ 신라 중대에는 왕의 정치적 조언자로 활동하였다.
- ④ 강수, 설총, 최치원이 이 골품에 해당하는 자들이었다.

[정답] ①

[해설] 제시된 신분은 6두품에 대한 설명이다. 6두품은 중앙 관청의 우두머리인 집사부 시중이나, 중시령, 지방 장관직인 도독, 소경의 사신은 임명될 수 없었다. 즉 이들 관직은 정골만이 독점적으로 장악하였다.

6.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발해의 주민 중 다수는 고구려계 사람들이며, 이들 중의 일부는 지배층이 되었다.
- ② 발해는 당의 수도인 장안성을 본떠 상경성을 바둑판 모양으로 반듯하게 구획하였다.
- ③ 발해 문왕 때에는 당과 친선 관계를 맺은 이후,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 ④ 발해는 통일 신라와 경쟁의식을 가져 국제무대에서 대립하기도 하였으나, 때때로 사신을 파견하여 우의를 다졌다.

[정답] ①

[해설] 발해의 국민 구성은 지배층은 고구려계(대다수) > 말갈계(일부), 피지배층은 고구려계 < 말갈계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②-발해는 당의 수도인 장안성을 본떠 상경성을 바둑판 모양으로 반듯하게 구획하였고 주작대로는 도교의 영향을 받은 명칭이다. ③-발해와 당과의 관계는 고왕 때 교류, 무왕 때 대립, 문왕 이후 친선 교류가 이루어졌다. ④-발해와 신라와의 관계는 고왕 때 교류, 무왕 때 대립[전쟁], 문왕 이후 교류관계[신라도(39역 설치)]를 유지하였고 때에 따라 경쟁관계이기도 했다[석차쟁장사건, 등제서열사건].

7. 삼국시대의 정치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구려 소수림왕은 울령 반포, 불교 공인 등을 통해 지방의 부족세력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였다.
- ② 신라 지증왕은 국호를 신라로 바꾸고, 왕의 칭호도 마립간에서 왕으로 고쳤다.
- ③ 백제 무령왕은 대외 진출이 쉬운 사비(부여)로 도읍을 옮기고,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 ④ 백제 성왕은 중앙 관청을 22부로 확대 정비하고, 수도를 5부로 지방을 5방으로 정비하였다.

[정답] ③

[해설] 백제 무령왕 때에 22담로제로 개편[《양서(梁書)》백제전]한 것은 맞으나, 사비[충남 부여] 천도는 538년 성왕 때이다.

8. 고려시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2세기 중엽에는 고려의 독창적인 상감법이 개발되어 도자기에 활용되었다.

② 관촉사의 석조 미륵보살 입상은 부석사 소조 아미타여래 좌상과는 달리, 신라 시대 양식을 계승한 것이다.

③ 상감 청자는 강화도에 도읍한 13세기 중엽까지 주류를 이루었으나 원 간섭기 이후에는 제작 기법이 퇴조하였다.

④ 봉정사 극락전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다.

[정답] ②

[해설] 고려 초기의 경기도 광주 춘궁리 철불과 부석사 소조 아미타여래 좌상은 신라 시대 양식을 계승한 것이며,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과 안동 이천동 마애 석불은 고려 초기의 지방 호족과 관련되어 지역색이 반영된 자유분방하고 파격미의 모습을 보여, 기존의 신라 통일기의 균형미, 조화미, 정제미의 미학에서 탈피한 특색을 보인다.

9. 고려시대 불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의천은 대립상태에 있었던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자, 먼저 선종의 여러 종파를 종합하고, 해동 천태종을 열어 교종을 융합하고자 하였다.

② 광종은 과거제를 실시하였으나, 승과는 두지 않았다.

③ 지눌과 혜심의 활동은 교종을 후원하고자 하는 무신정권의 지원을 받았다.

④ 지눌의 뒤를 이은 혜심은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였다.

[정답] ④

[해설] ①-의천은 교종 내부에서는 화엄종 중심으로 법상종을 통합하려 하였고, 또한 교종 중심으로 선종 교단을 통합하기 위해 해동천태종을 개창하고 국청사를 세워 주석하였는데, 기존의 선종 승려들이 많이 합류하여 해동 천태종은 선종 성격이 되었으며, 의천 사후 다시 교단이 분열하였다. ②-고려의 과거는 문과[제술과, 명경과], 잡과[율, 서, 산, 의, 복, 지리 등], 승과[교종선, 선종선]로 구분하여 시행하였고 무과는 예종 때 일시 설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③-지눌과 혜심은 선종계열인 조계종이며, 무신정권의 지원을 받았다.

10. 조선시대 과학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태종 때에는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돌에 새겼다.

② 계미자, 갑인자 등 정교하고 아름다운 활자가 만들어졌고, 세조 때에는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을 창안하여 인쇄 속도도 빨라졌다.

③ 토지 측량 기구로 인지의와 규형을 제작하였다.

④ 『동국병감』, 『병장도설』을 간행하여 군사 훈련 지침서로 사용하였다.

[정답] ③

[해설] ①-태조, ②-세종, ④-『동국병감』은 15세기 문종 연간에 간행된 위만조선기부터 고려 말까지의 이민족과의 전쟁을 계통적으로 정리한 최고의 전쟁사이다. 『병장도설』은 1492년(성종 23)에 간행된 《진법 陣法》을 1742년(영조 18)에 《병장도설》로 책명을 바꾸어 복간한 책으로, 《진법》의 내용과 거의 같으며, 책명을 바꾼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고 있지 않다. 책머리에 수양대군의 서문, 책끝에 1742년에 쓴 영조의 후서와 1455년(세

조 1)의 한계희(韓繼禧)의 발(跋) 및 1492년(성종 23) 홍귀달(洪貴達)의 발문이 있고, 형명도(形名圖)·진법(陣法)·진도(陣圖)가 실려 있다.

형명도에는 교룡기(交龍旗)·독(纛)·대각(大角)·금(金)·고(鼓) 등 32개의 각종 지휘·통신용 기구의 그림과 간략한 설명이 있다.

진법은 분수(分數)·형명·결진식(結陣式)·일위독진(一衛獨陣)·합진(合陣)·오위연진(五衛連陣)·용병(用兵)·군령(軍令)·장표(章標)·대열의주(大閱儀注)·용겁지세(勇怯之勢)·승패지형(勝敗之形)의 12항으로 세분되어 군대편제·지휘 및 통신·전투대형·전술·군령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진도에는 하도(河圖)·낙서(洛書)·곡진(曲陣)·예진도(銳陣圖)·직진도(直陣圖)·방진도(方陣圖)·원진도(圓陣圖)·오위연곡진(五衛連曲陣)·오위연예진(五衛連銳陣)·오위연원진(五衛連圓陣)·오위연방진(五衛連方陣)·오위연직진(五衛連直陣) 등의 진도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영조가 선대의 위업과 유제(遺制)를 선양하려는 뜻에서 복간하였으나, 당시에는 척계광(戚繼光)의 기효신서법(紀效新書法)이 전용되고 있었으므로 군제 및 군사조련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11. 밑줄 친 ‘내’가 재위한 시대에 있었던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왕이 어려서 무릇 조치하는 바는 모두 김종서 등에게 맡겨 논의, 시행하였다. 지금 ‘내’가 명을 받아 왕통을 계승하여 군국 서무를 아울러 모두 처리하며, 조종의 옛 제도를 모두 복구한다. 지금부터 형조의 사형수를 제외한 모든 서무는 6조가 각각 그 직무를 담당하여 직계한다.

- ① 과거 제도를 시행하고, 광덕 . 준풍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 등 왕권이 강화되었다.
- ②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 ③ 경국대전의 편찬을 마무리하고 반포하였다.
- ④ 이종무가 병사 1만 7천명을 이끌고 쓰시마 섬을 토벌하였다.

[정답] ②

[해설] 제시된 자료는 세조와 6조직계의 내용이다. ①-고려 광종, ②-세조, ③-성종, ④-세종 때의 사실이다.

12. 조선시대 성리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경덕은 기(氣)보다는 이(理)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불교와 노장 사상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지녔다.
- ② 이황은 『성학집요』를 저술하여 군주 스스로가 성학을 따를 것을 제시하였다.
- ③ 이이는 『주자서절요』, 『동호문답』을 저술하여 16세기 조선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통치 체제의 정비와 수취 제도의 개혁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 ④ 이언적은 기(氣)보다는 이(理)를 중심으로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여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정답] ④

[해설] ①-서경덕은 우주는 기(氣)로만 구성되었다는 유기설[唯氣說]의 입장이었으며, 불교와 노장 사상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지녔다. ②-이황은 『성학집요』를 저술하였고, 『성학집요』는 이이의 저술이다. ③-『주자서절요』는 이황의 저술이다. ④-이언적은 영남학파로, 홍문관 부제학 당시 중종 36년(1541) 4월 무오(2일)에 관원들과 함께 「일강십목소(一綱十目疏)」를 지어 올렸다. 「일강십목소」에서는 ‘임금의 마음씀[人主之心術]’을 근본강령으로 규정하고, 가정 법도의 엄숙, 국가 근본의 배양, 조정 기강의 정대, 인재 취사의 신중, 하늘 도리에 순응, 언론을 넓힘, 사치 욕심의 경계, 군자의 길을 닦음, 일의 기미를 살핌을 도모하도록 요구하였다[성학군주론]. 또한 1517년 저술한 「오잠(五箴)」에서도 하늘을 두려

위함[畏天], 마음을 배양함[養心], 공경하는 마음[敬心], 허물을 고침[改過], 의지를 독실하게 함[篤志]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그는 하늘[天道·天心]과 백성[人心]에 순응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수양[養心·敬心]에 힘쓸 것을 중요시하는 도학적 수양론을 경세의 근본으로 삼고 있다.

그는 1517년 영남지방의 선배학자인 손숙돈(孫叔墩)과 조한보(曹漢輔) 사이에 토론되었던 성리학의 기본쟁점인 무극태극논쟁(無極太極論爭)에 뛰어들었고, 주희의 주리론적 견해를 바탕으로 두 학자의 견해를 모두 비판하여 자신의 학문적 견해를 밝혔다. 그가 벌인 태극의 개념에 관한 논쟁은 조선조 성리학사에서 최초의 본격적인 개념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논쟁에서 이기론(理氣論)의 주리론적 견해로서 이선기후설(理先氣後說)과 이기불상잡설(理氣不相雜說)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이우위설(理優位說)은 이항(李滉)에게로 계승되는 영남학파의 성리설에 선구가 되었다.

13. 다음 보기 중 조선 후기 실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이익은 관리, 선비, 농민 등 신분에 따라 차등 있게 토지를 재분배하자는 한전론(限田論)을 주장하고, 나라를 좀먹는 여섯 가지의 폐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 ㉡ 정약용은 지방 행정의 개혁에 대하여 쓴 『경세유표』 등을 비롯하여 500여 권의 저술을 남겼다.
- ㉢ 유형원은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모의 토지를 영업전으로 정한 다음, 영업전은 법으로 매매를 금지하고, 나머지 토지만 매매를 허용하자는 균전론(均田論)을 주장하였다.
- ㉣ 박지원은 청에 다녀와 『열하일기』를 저술하여 생산과 소비와의 관계를 우물물에 비유하면서 생산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 유수원은 『우서』를 저술하여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의 혁신을 강조하고, 사농공상의 직업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하였다.
- ㉥ 이수광은 『지봉유설』을 저술하여 문화 인식의 폭을 확대하였고, 한백겸은 『동국지리지』를 저술하여 우리나라의 역사 지리를 치밀하게 고증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③[㉡㉢㉣] [복수정답 필요]

[해설] ㉠-이익의 한전론(限田論)은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모의 토지를 영업전으로 정한 다음, 영업전은 법으로 매매를 금지하고, 나머지 토지만 매매를 허용하자는 내용이며, 나라를 좀먹는 여섯 가지의 폐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6종론]. 관리, 선비, 농민 등 신분에 따라 차등 있게 토지를 재분배하자는 주장은 유형원의 균전론이다.

㉡-정약용의 『경세유표』는 제1책(권1~3)과 제2책(권4~6)은 천관이조(天官吏曹)·지관호조(地官戶曹)·춘관예조(春官禮曹)·하관병조(夏官兵曹)·추관형조(秋官刑曹)·동관공조(冬官工曹) 등 육조와 그 소속 관서의 구성 및 담당 업무를 서술하고, 각 조에서 관장할 사회·경제 개혁의 기본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조는 궁부일체(宮府一體)의 원리에 입각하여 왕실관련 업무를 대폭 담당하도록 하였다.

호조는 재정 담당 기능과 더불어 토지제도의 개혁을 주관하고 국민에 대한 교육 기능을 갖도록 하였다. 예조는 제례를 담당하는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병조는 중앙 군영을 직접 통할하여 실질적인 군사 담당 기구가 되도록 하였다.

형조는 통치 질서 확립을 위한 사회 통제 기능이 강화되어 향리 통제·거래 질서 확립 등의 업무가 추가되었다. 공조는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도록 국가의 자원을 관리하고 수레·선박·벽돌·도자기 등의 제작과 기술 보급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제3책(권7~9)은 천관수제(天官修制)로 이조의 업무에 대한 부분인데, 관직 체계·관품 체계의 조직과 운영 방법, 국도(國都)의 재구획안, 전국 지방제도의 재조정과 지방 행정체계의 운영 방법 개선 및 관료의 인사고과제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관직 체계의 운영을 개선하여 중인기술직을 우대하고 서얼 출신의 승진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전국 8도를 12성(省)으로 재편하고 민호와 전결을 기준으로 군현의 등급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강조하였다.

제5책부터 제14책까지는 지관수제(地官修制)로 호조의 업무에 관한 부분이며, 토지제도와 조세제도의 개혁 방안을 주로 설명하고 있다.

제5책(권12~14)과 제6책(권15~17)은 정전제(井田制)에 대해 서술하였다. 정전법이란 토지를 정자(井字)로 구획하여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면적을 계산하여 사전과 공전의 비율을 9:1로 하거나 세율상 9분의 1만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임을 설명하고, 우리 나라에서 정전법을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과 실현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제7책(권18~20)과 제8책(권21~23)도 역시 정전제에 대한 서술 부분으로, 그 실시 방법과 군사제도의 정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여기에서는 전국의 토지를 강제로 몰수하여 재분배하거나 모든 토지를 구획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관에서 먼저 기준이 되는 정전을 마련하여 9분의 1만을 세금으로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했으며 정전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정전을 경작하는 농민을 기간으로 하는 병농일치의 군사제도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중앙군은 상비병이므로 정전이 아니라 둔전(屯田)을 설치하여 양성하도록 하였다.

제9책(권24~26)은 정전제 실시를 위한 양전(量田)의 필요성과 방법을 설명하였다. 즉, 수확량을 기준으로 양전하는 결부법(結賦法)을 고쳐 토지의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며, 어린도(魚鱗圖)를 작성하여 양전에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하였다.

제10책(권27~29)과 제11책(권30~33)에는 부세제도(賦稅制度)의 개혁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농민과 토지에만 국가의 부세가 집중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광업·공업·어업·상업·임업 등 모든 산업에 과세하여 국민의 평균 부담을 줄이는 한편, 국가의 재정 수입 증대를 도모하였다.

제12책(권34~36)에서는 환곡제도의 모순과 폐해를 비판하고 대신 사창제(社倉制)를 실시하고 상평법(常平法)을 시행하여 구휼사업이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하였다. 제13책(권37~38)에도 부세제도의 개선 방안을 수록하였다. 특히 어업과 염전 등에 부과되는 세금의 모순과 부조리를 비판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또, 선박에 대해서도 그 크기와 성능을 규격화하여 기준에 따라 과세하고, 전선을 평상시에는 상선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제14책(권39~41)은 호적법과 교민지법에 관한 것으로, 호적을 정비하여 국민을 확실히 파악, 조직화하는 방법과 국민 중 인재를 뽑아 교육시키는 방법 등이 제시되었다.

제15책(권42~44)에는 춘관수제(春官修制)와 하관수제(夏官修制)가 같이 수록되어 있으며, 주로 문과·무과 과거제도의 개혁 방법을 논하였다. 문과·무과 모두 3년마다 1회씩만 시험을 실시하고, 별시 등 각종 특별 시험을 없애 선발된 인원이 관직을 갖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응시 자격을 제한하여 능력 있는 인물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발 과정을 엄격히 하여 관직 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서얼 출신이나 서북지방 출신들이 과거시험에 차별을 받지 않게 하고 관직에 들어선 뒤에도 순조롭게 승진할 수 있도록 배려되었다.

이 책은 이른바 1표2서(一表二書)라 하여 《목민심서 牧民心書》·《흠흠신서 欽欽新書》와 함께 정약용의 경세사상을 대표하는 저술의 하나이다.

이 가운데 《목민심서》나 《흠흠신서》가 당시의 법률 체계나 사회 구성원리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 행정이나 형사 사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상세하고 세부적인 실무 지침을 규정하고 있는 책들임에 비해, 《경세유표》는 주로 국가의

큰 틀에서의 통치체제의 개혁에 대해 주장하고 있지만, 제3책(권7~9)에서 언급했듯이, 전국 지방제도의 재조정과 지방 행정체계의 운영 방법 개선 및 관료의 인사고과제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점에서 ㉠도 틀린 서술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유형원의 균전론은 신분에 따른 토지의 차등분배를 주장한 내용이며,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모의 토지를 영업전으로 정한 다음, 영업전은 법으로 매매를 금지하고, 나머지 토지만 매매를 허용하자는 주장은 이익의 한전론이다. ㉢-박지원은 청에 다녀와 『열하일기』를 저술한 것은 맞으나, 생산과 소비와의 관계를 우물물에 비유하면서 생산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박제가이다.

14. 조선 후기에는 민족의 전통과 현실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우리의 역사, 지리, 국어 등을 연구하는 국학이 발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최초로 100리척을 사용하여 산맥, 하천, 포구, 도로망을 정밀하게 표시하였다.
- ② 이종휘는 『동사』에서 고구려 역사 연구를, 유득공은 『발해고』에서 발해사 연구를 심화하였다.
- ③ 이공익은 500여 종의 중국 및 일본의 자료를 참고하여 『연려실기술』을 편찬하여 민족사 인식의 폭을 넓히는 데 이바지하였다.
- ④ 안정복은 조선 시대의 정치와 문화를 정리하여 『동사강목』을 저술하여 우리 역사의 독자적 정통론을 세워 이를 체계화하였다.

[정답] ②

[해설] ①-최초로 100리척을 사용한 축척지도는 18세기 정상기의 『동국지도』이다. ③-500여 종의 중국 및 일본의 자료를 참고하여 민족사 인식의 폭을 넓히는 데 이바지한 것은 한치윤의 『해동역사』이다. 『해동역사』의 체제는 정사체(正史體)인 기전체를 따랐으나 표(表)는 생략했다. 그리고 객관적인 찬술을 위해 550여종의 인용서를 동원하였다. 즉, 중국의 사서 523종, 일본의 사서 22종과 한국의 기본서를 참고로 했다. ④-안정복이 『동사강목』을 저술하여 단군조선부터 고려 말기까지 우리 역사의 독자적 정통론을 세워 이를 체계화한 것은 맞으나, 조선 시대의 정치와 문화를 정리한 것은 이공익의 『연려실기술』이다.

15. 다음 민요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새야 새야 녹두새야	새야 새야 팔왕(八王)새야
웃넝 새야 아랫넝 새야	네 무엇하러 나왔느냐
전주 고부 녹두새야	솔잎 댓잎이 푸릇푸릇
함박 쪽박 열나무 딱딱 후여	하절인가 하였더니
새야 새야 녹두새야	백설이 펄펄 날리니
녹두밭에 앉지마라	저 강 건너 청송 녹죽이 날 속인다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① 교세가 확장되면서 대중 집회를 열고, 억울하게 처형된 교조 최시형의 원을 풀고자 하는 교조 신원 운동을 벌였다.

② 고부 군수 조병갑에 대한 불만과 단발령 실시에 항거하여 1894년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되었다.

③ 황토현 전투와 장성 황룡촌, 우금치 등에서 관군을 물리치고 복상하여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④ 폐정 개혁 12조를 실현할 목적으로 전라도 53개 군에 민정기관을 설치하였다.

[정답] ④

[해설] 제시된 사료는 ‘녹두장군’ 전봉준과 관련된 민요이다. ①-교조신원운동[1892~1893]은 제1대 교조 최제우의 원을 풀고 동학의 포교활동의 자유를 요구하며 전개한 것이다. ②-농민전쟁 시작은 1894년이고, 단발령은 농민전쟁 이후인 1895년 을미개혁[=갑오3차개혁] 시기의 사실이다. ③-황토현 전투와 장성 황룡촌 등에서 관군을 물리치고 복상하여 전주성을 점령한 것은 농민전쟁 2기[=1차전쟁]이고, 공주 우금치 전투는 농민전쟁 4기[2차전쟁] 중에서도 마지막 시기인 1894년 11월8일~11월12일이다. ④-폐정 개혁 12조를 실현할 목적으로 전라도 53개 군에 역사상 최초의 농민 중심의 자치적 통치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한 것은 농민전쟁 제3기이다[집강소 공인 : 1894년 6월 7일].

16. 신민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권 회복과 입헌군주체제의 국민 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은 비밀 조직이었다.
- ② 표면적으로는 문화적, 경제적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하면서, 내면적으로는 국외 독립군 기지의 건설에 의한 실력 양성을 기도하였다.
- ③ 만주와 연해주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였다.
- ④ 신민회의 국내 조직은 105인 사건으로 인하여 와해되었다.

[정답] ①

[해설] ①-신민회는 역사상 최초로 공화정체제를 주장하였다.

17. 국학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국 학자들에 의해 순수 학술 연구 단체인 청구 학회가 조직되어 일제 식민 사학에 대항하며 한국사의 실증적 연구에 힘썼다.
- ② 박은식은 『한국 통사』, 『한국 독립 운동지혈사』, 『5000년간 조선의 얼』을 저술하여 일제에 의한 한국 고대사의 타율성과 정체성을 반박하면서 우리 고대사의 독자성을 부각시켰다.
- ③ 민족주의 성격이 강한 천도교는 중광단과 북로군정서군을 결성하여 항일 무장 투쟁을 벌였다.
- ④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에 입각하여 발전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식민주의 사관의 정체성 이론을 반박하는 사회 경제사학이 백남운 등에 의해 1930년대에 대두되었다.

[정답] ④

[해설] ①-청구학회[1930]는 일제에 의해 설치된 어용 학술연구단체로써, 1930년 경성제대 법문학부와 조선총독부의 조선사편수회 학자들이 모여 식민주의 역사학(식민사관)의 관점에서 조선 및 만주의 역사·문화를 연구했다. 기관지 <청구학총>을 발간하고 강연회와 강습회 개최, 학술연구여행·연구자료 출판사업 등을 전개했다. 식민주의 역사학은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식민지 지배의 이론적·이데올로기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데 기능하였으며, 청구학회의 조선인 회원으로는 최남선·이능화(李能和)·이병도(李丙巖)·신석호(申奭鎬) 등이 대표적 인물들이다. ②-『5000년간 조선의 얼(1935년부터 1936년 ‘동아일보’ 연재)』을 저술한 인물은 정인보이다. 1935년부터 1936년 ‘동아일보’가 정간될 때까지 ‘오천년간 조선의 얼’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었던 것을 서울신문사에서 『조선사 연구』 상(1946. 9)·하(1947. 7) 두 권으로 간행하였다. 또한 저체성론을 반박한 것은 사회경제사학의 백남운이다. ③-중광단[1911]과 북로군정서군[1919]을 결성하여 항일 무장 투쟁을 벌인 것은 대종교이다. ④-사회경제사학 분야의 백남운은 『조선사회경제사(1933)』, 『조선봉건사회경제사(1937)』를 저술하여 K.MARX의 유물변증법을 토대로 한국사의 세계사적 보편성을 주장하여 식민사관의 정체성론을 비판하였다.

18. 다음 보기를 시대 순으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 일본군이 간도 참변을 일으켜 우리 동포를 학살하였다.
 ㉡ 한 . 일 학생 간의 충돌 사건을 계기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다.
 ㉢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국내외의 독립 운동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상하이에서 국민 대표 회의를 열었다.
 ㉣ 일제와 만주 군벌 사이에 독립군의 탄압, 체포, 구속, 인도에 관한 이른바 미쓰야 협정이 맺어짐으로써 독립군의 활동은 큰 위협을 받게 되었다.

-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정답] ①

[해설] ㉠-간도참변[1920.10~1921], ㉣-광주학생항일운동[1929.11], ㉢-국민대표회의[1923.1월~5월], ㉡-미쓰야 협정[1925]

19. 다음 보기를 시대 순으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 사사오입 개헌
 ㉢ 휴전 협정 조인
 ㉣ 발췌 개헌
 ㉤ 향토 예비군 창설

-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정답] ③

[해설]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1953.10.1], ㉡-사사오입 개헌[1954.11.29], ㉢-휴전 협정 조인[1953.7.27], ㉣-발췌 개헌[1952.7.4.], ㉤-향토 예비군 창설[1968.4.1]

20. 다음 보기는 어느 성명 또는 선언의 내용인가?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 ① 1972년 7. 4 남북 공동 성명
 ② 1973년 6. 23 평화 통일 외교 정책 선언
 ③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④ 2000년 6. 15 남북 공동 선언

[정답] ④

[해설] 제시된 자료는 2000년 6·15 남북 공동 선언의 내용 중 일부이다.

[6·15남북공동선언(2000)]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 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 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 위원장 김정일